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2017. 9. 29 |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 smj@saesayon.org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은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문제는 2016년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선부른 판단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담긴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 변화추이와 구성을 분석하여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들어가기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숙련을 쌓지 못한 청년,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여성 혹은 전문직에서 일하지 않은 장년층 등에서 체감하는 실업문제는 더욱 매서웠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었던 실업문제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국가 차원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쏟아져 나왔다.

금융위기 강타 직후인 2009년은 국내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로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은 58.8%, 실업률은 3.68%였다. 그런데 최근 2016년 8월에는 취업률이 다시 61%로 올랐다. 그런데 함께 보아야 할 점은 2016년의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 2.98%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 다시 예전만큼 높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원인으로는 인구변동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들이 많아진 것에 비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적합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일자리의 '질'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대우에 관하여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고용형태를 갖고 IMF 이전까지 평생직장을 담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발달과 금융위기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



세이므로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단적인 데이터의 결과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선부르다.

선부르다고 말하는 이유는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같은 중(준)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작업장 내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상용근로자로 구분되는 경우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정규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일자리에 앞서 실업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받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담긴 자료인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 변화추이와 구성을 분석하여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07-2016 국내 노동시장 분석

표 1. 주요 노동시장 구성원 변화 추이 (단위 : 명)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2007	39,231,500	24,221,701	23,465,624	756,076
2008	39,657,293	24,380,441	23,616,940	763,501
2009	40,167,525	24,524,558	23,619,700	904,858
2010	40,650,776	24,836,020	24,005,226	830,794
2011	41,118,722	25,257,187	24,494,869	762,318
2012	41,664,253	25,622,662	24,858,846	763,816
2013	42,168,342	26,074,013	25,291,218	782,795
2014	42,571,371	26,774,581	25,884,668	889,913
2015	43,086,089	27,064,088	26,140,935	923,153
2016	43,464,548	27,523,984	26,527,857	996,12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표 1을 참고하여 노동시장의 규모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0년 동안 약 423만 명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330만 명, 취업자는 306만 명 그리고 실업자는 24만 명 증가하였다. 2009년에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매우 소폭 증가하였고 실업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하였다.



그림 1. 주요 노동시장 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참고 :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 좌측 축 / 실업률 - 우측 축

그림 1에서 앞의 표 1의 내용을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증감 추이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오르면서 동시에 실업률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시장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프에도 2009년에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노동시장 상황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 지표인 실업률이 2013년을 기점으로 오르고 있어 노동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변화 및 전년대비 증감률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참고 : 남성, 여성 취업자 수 - 좌측 축 / 남성, 여성 전년대비증감률 - 우측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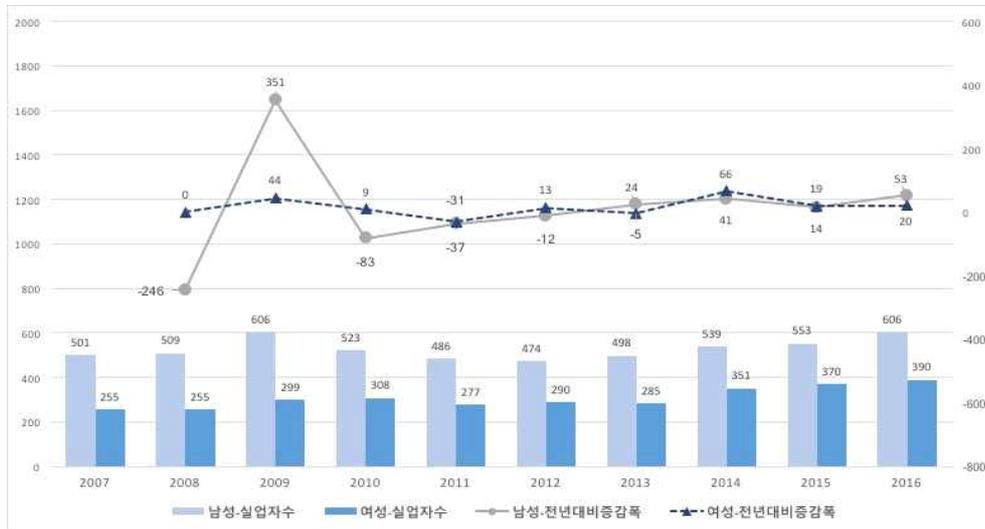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 2는 성별 취업자 수와 각 성별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낸 표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한 모양새이다. 다만 남성의 경우 증가의 정도가 변화가 있을지라도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여성은 2009년에 5천명 가량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실업자 수 변화 및 전년대비 증감을 변화를 아래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밝힌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남성의 실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다만, 그림 2와 3을 함께 보면 여성의 2배가 넘는 실업자 수와 상당한 증가폭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남성의 취업자 수가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성의 경우 실업자가 감소한 적이 조사기간 중 2011년 단 한번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과 취업자 수 추이를 보았을 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남성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성별 실업자 수 변화 및 전년대비 증감을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참고 : 남성, 여성 실업자 수 - 좌측 축 / 남성, 여성 전년대비증가폭 - 우측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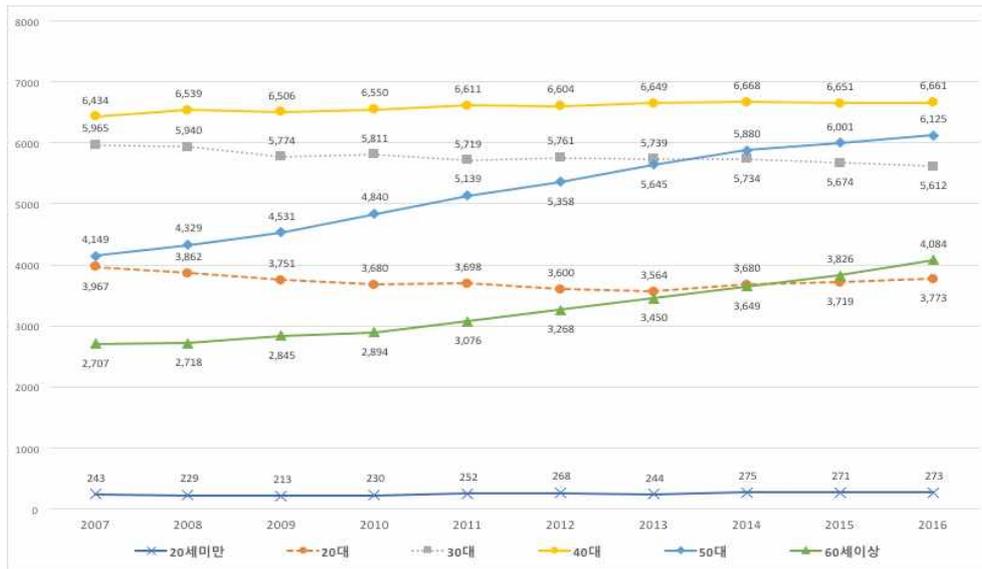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를 아래 그림 4로 표현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50대와 60대 중고령자 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이미 50대 취업자 수가 2014년에 30대 취업자 수를 뛰어 넘었고, 60대 취업자수는 2015년에 20대 취업자 수를 뛰어 넘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중고령자 층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는 OECD 국가 내에서도 최악의 수준이다.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이 미약하여 노인들이 취업활동을 통해 수입이 있어야 노년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형 취직이 많다. 우려할만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중고령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정규직이나 고용보호 체제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신체



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취업시장에 중고령층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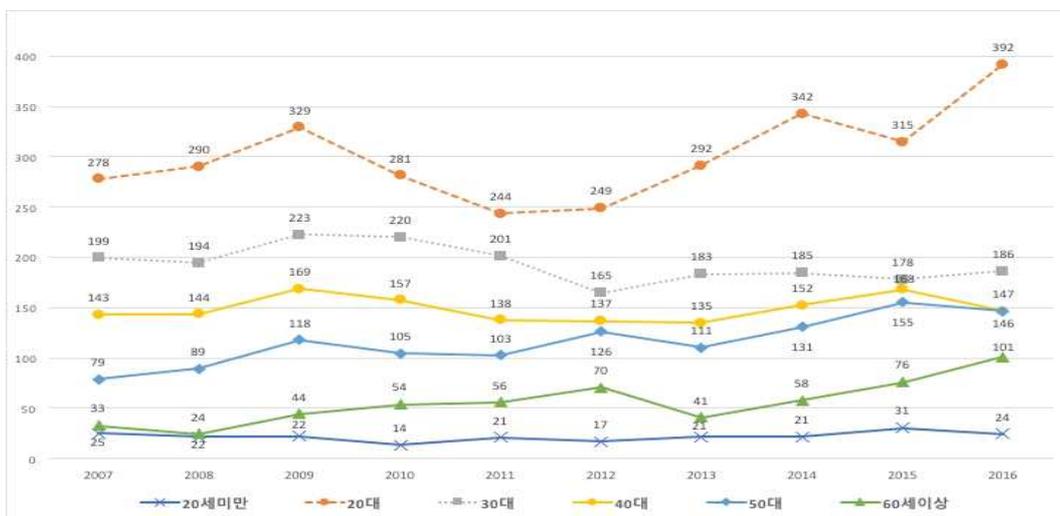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연령별 실업자 추이를 보면 20대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 실업자 수에 관련한 통계 수치를 낼 때,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교육도 받지 않으나 취업에 관한 의지가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20대 혹은 30대의 경우 아래 그림 5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 연령별 실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최근 5년간 산업별 취업자 수는 표 2와 같다. 제조업에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데,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2016년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도소매업의 경우 취업자수가 많은 산업 중 하나인데, 2014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적어지고 있다. 반면 보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최근 5년의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산 업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산업	24,859	25,291	25,885	26,141	26,528
농업, 임업 및 어업	1,694	1,721	1,596	1,482	1,415
광업	14	16	13	15	18
제조업	4,111	4,116	4,335	4,491	4,4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8	97	84	93	88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6	76	92	90	98
건설업	1,753	1,746	1,810	1,820	1,891
도매 및 소매업	3,694	3,635	3,795	3,721	3,759
운수업	1,378	1,434	1,399	1,422	1,396
숙박 및 음식점업	1,915	2,012	2,136	2,238	2,3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85	695	700	781	803
금융 및 보험업	827	881	833	786	8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75	485	515	530	5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47	998	1,032	1,065	1,1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36	1,154	1,172	1,236	1,2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68	984	974	950	1,014
교육 서비스업	1,730	1,794	1,827	1,815	1,8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08	1,583	1,741	1,789	1,8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2	399	407	439	4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86	1,281	1,296	1,284	1,29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64	181	112	77	63
국제 및 외국기관	10	6	16	19	1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을 2007년과 2016년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남성 취업자가 많으며,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여성 취업자가 많다. 금융보험업은 특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남성 취업자가 줄어든 모습이 보인다.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남성 취업자 수도 많이 증가하였다.

표 3. 산업별,성별 취업자 수 변화(단위 : 명)

산 업	2007년		2016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 산업	13,679,133	9,784,414	15,263,351	11,264,506
농업, 임업 및 어업	969,877	893,276	804,700	609,954
광업	15,607	1,071	16,301	2,014
제조업	2,678,968	1,266,286	3,139,057	1,278,47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2,891	14,767	72,837	15,59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0,284	9,862	84,694	12,890
건설업	1,650,808	169,983	1,736,938	154,069
도매 및 소매업	2,000,803	1,626,492	2,049,904	1,708,888
운수업	1,178,415	86,708	1,247,979	147,576
숙박 및 음식점업	635,314	1,435,025	890,375	1,450,6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76,294	185,982	572,962	230,157
금융 및 보험업	383,730	407,728	373,272	429,2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5,578	164,701	355,380	226,7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6,796	220,412	720,761	379,84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79,389	404,713	697,170	597,3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41,536	258,269	630,768	383,456
교육 서비스업	589,451	1,159,738	623,054	1,223,1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09	540,162	367,527	1,519,4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6,024	151,657	222,959	178,9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18,960	624,204	641,129	651,211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3,390	158,902	943	62,418
국제 및 외국기관	13,709	4,477	14,642	2,33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표 4. 최근 5년의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직업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직업	24,859	25,291	25,885	26,141	26,528
관리자	473	396	411	348	3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772	5,062	5,170	5,218	5,361
사무 종사자	4,103	4,203	4,298	4,391	4,514
서비스 종사자	2,581	2,586	2,747	2,766	2,916
판매 종사자	3,006	3,013	3,114	3,070	3,10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11	1,631	1,517	1,401	1,33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70	2,214	2,236	2,354	2,36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852	2,967	3,051	3,155	3,122
단순노무 종사자	3,191	3,221	3,341	3,439	3,47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최근 5년간 직업별 취업자 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어업 숙련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표 5. 직업별, 성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명)

직업	2007년		2016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 직업	13,679,133	9,784,414	15,263,351	11,264,506
관리자	556,962	54,919	293,444	28,98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37,084	1,770,162	2,806,092	2,554,903
사무 종사자	1,739,860	1,627,147	2,343,018	2,170,793
서비스 종사자	822,768	1,739,610	994,583	1,921,816
판매 종사자	1,509,764	1,558,318	1,555,222	1,553,55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945,217	833,787	794,423	543,65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960,264	338,394	2,043,662	322,4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328,838	318,875	2,744,113	377,747
단순노무 종사자	1,478,377	1,543,202	1,688,795	1,790,63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직업별 취업자 수 현황을 산업별과 동일한 기준인 2007년과 2016년을 성별로 변화를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다음은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이다.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



자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많다.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다. 과거 서비스 종사자가 사무종사자보다 많았던 것과는 변동이 있었다. 아쉬운 점은 관리자 직업에 여성이 여전히 남성의 10% 미만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여성 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자원 능력도 성별 격차가 줄어든 것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 유리천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6. 최근 5년의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명)

규모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취업자 수	24,858,846	25,291,218	25,884,668	26,140,935	26,527,857
1-4명	9,993,255	10,048,356	10,175,144	9,928,446	9,905,030
5-9명	3,470,868	3,569,769	3,679,149	3,815,262	3,927,605
10-29명	4,144,277	4,107,519	4,254,887	4,392,016	4,512,574
30-99명	3,432,512	3,635,931	3,647,252	3,752,456	3,782,315
100명-299명	1,736,287	1,740,047	1,822,158	1,863,111	1,964,838
300명 이상	2,081,648	2,189,597	2,306,078	2,389,643	2,435,49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사업체 규모별로 취업자 수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고용이 30인 미만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흡수하는 노동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정책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안정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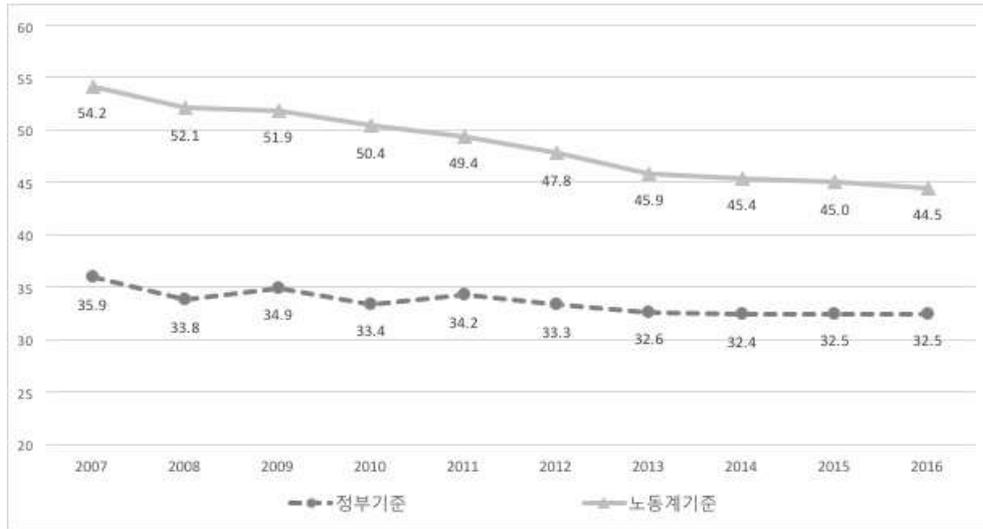
2016년 비정규직 현황 분석

비정규직을 산출하는 방법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를 합한 결과를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로 발표하고 있다. 이다. 반면 노동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정규직 산출 방법¹⁾은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시간제 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그리고 가내근로를 중복 없이 취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를 정부 추산과 노동계 추산을 함께 분석하고, 이후 노동계기준을 활용하여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자 한다.

1) 김유선, 2016, "비정규직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8)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그림 6. 비정규직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그림 6은 정부기준으로 통계청에서 게시하는 기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담은 그래프이다. 정부기준에 비해 노동계의 기준이 많게는 2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적게는 12% 정도의 차이가 난다. 국내 근로형태는 타 국가에 비해 어느 한 카테고리도 정의내리기 어려운 형태들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림 6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정부 기준으로는 2.4%p, 노동계 기준으로는 9.7%p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였다.

그림 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및 임금비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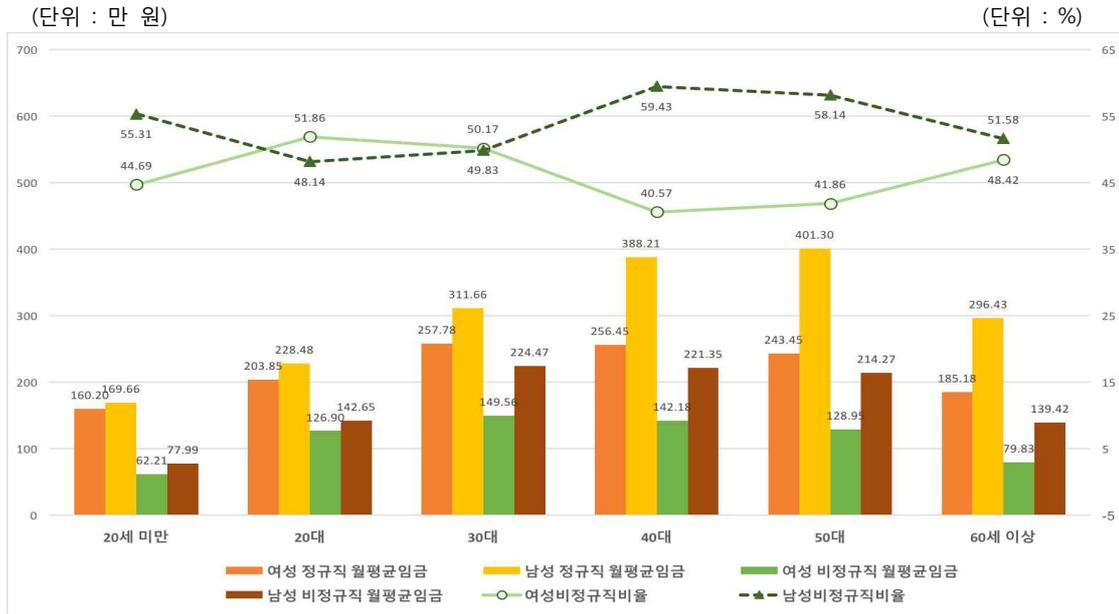
참고 : 월평균임금 - 우측 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좌측 축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비정규직의 비율은 줄어 들었을 지라도 임금 측면은 다소 경직적이다. 월평균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하고는 있으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단 한번도 50%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을 성별 및 연령별로 세분화 시켜서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 8이다.

그림 8. 성별 및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비정규직 임금현황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6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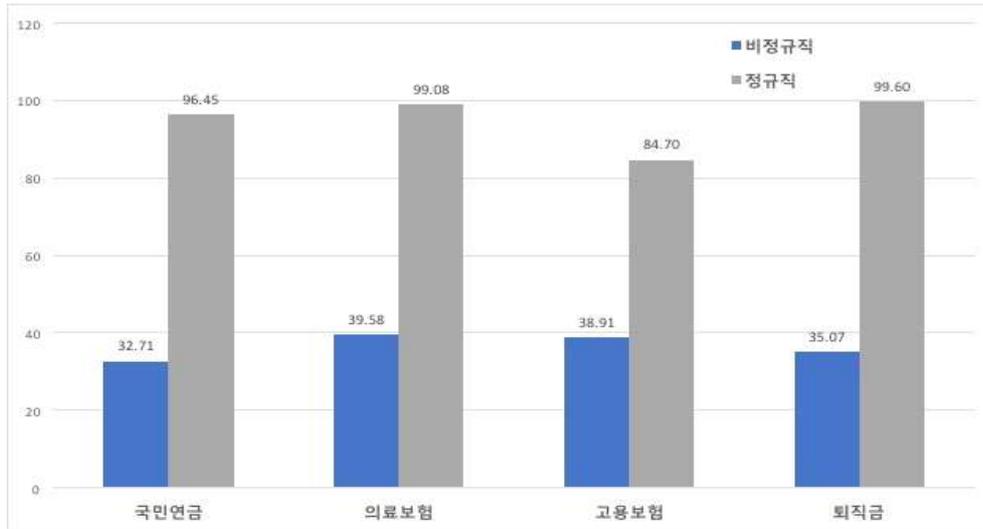
참고 : 월평균임금 - 우측 축 / 비정규직비율 - 좌측 축

2016년 8월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남성 비정규직 임금보다 여성 정규직 임금이 높아 임금 측면에서는 고용형태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30대의 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가장 높았고, 남성은 비정규직은 30대, 정규직은 50대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40대 이후 비정규직이 많지만 여성은 출산 및 육아의 영향이 강한 시기인 20대와 30대에 비정규직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규직은 연금과 보험을 직장에서 부담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비정규직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안전장치가 되기에 미약하다는 의미이다. 연금이나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가 과소 추정된 반면 고용보험과 퇴직금은 기업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1/3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림 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현황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6년 8월

표 6.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산 업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취업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전 산업	8,737,997	100	10,888,790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109,411	1.25	19,694	0.18
광업	4,340	0.05	13,975	0.13
제조업	936,228	10.71	2,976,334	27.3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690	0.13	75,412	0.6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23,031	0.26	66,896	0.61
건설업	935,974	10.71	526,423	4.83
도매 및 소매업	1,085,956	12.43	1,141,899	10.49
운수업	244,758	2.80	523,170	4.80
숙박 및 음식점업	1,203,358	13.77	277,512	2.5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9,241	1.71	564,292	5.18
금융 및 보험업	326,320	3.73	443,837	4.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0,105	2.86	138,739	1.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9,708	1.83	793,975	7.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55,425	10.93	265,131	2.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1,506	3.11	742,718	6.82
교육 서비스업	620,359	7.10	859,560	7.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0,462	8.93	1,028,591	9.4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8,584	1.93	94,997	0.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4,352	5.09	322,194	2.9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3,648	0.61	-	-
국제 및 외국기관	3,540	0.04	13,440	0.1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6년 8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보면, 정규직은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약 40%가 몰려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 10% 단위로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은 전체 산업 중에서도 높은 비율의 취업자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표 7. 직업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직업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취업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전 직업	8,737,997	100	10,888,790	100
관리자	54,361	0.62	230,134	2.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24,281	14.01	3,151,387	28.94
사무 종사자	795,295	9.10	3,421,631	31.42
서비스 종사자	1,336,083	15.29	603,661	5.54
판매 종사자	1,098,782	12.57	556,630	5.1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7,994	0.43	15,589	0.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930,336	10.65	795,933	7.3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34,120	7.26	1,604,164	14.73
단순노무 종사자	2,626,745	30.06	509,661	4.6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6년 8월

직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본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비정규직의 30%가 몰려 있는 것과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정규직의 2배인 것이 눈에 띈다. 정규직의 경우 사무종사자에 31.4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 28.94%가 있어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곳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8. 사업체 규모 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규모	비정규직		정규직	
	취업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취업자 수 (단위 : 명)	비율 (단위 : %)
전체 취업자 수	8,737,997	100	10,888,790	100
1-4명	2,744,379	31.41	786,892	7.23
5-9명	2,041,736	23.37	1,468,382	13.49
10-29명	1,948,158	22.30	2,477,238	22.75
30-99명	1,214,855	13.90	2,548,449	23.40
100명-299명	442,803	5.07	1,518,400	13.94
300명 이상	346,065	3.96	2,089,430	19.1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16년 8월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비정규직은 30인 미만 기업에 75%가 있다. 정규직은 30인 미만, 100인 미만에 절반 정도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동향을 분석할 때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량이 많은 것을 언급하였는데, 표 8의 결과와 함께 보면 다량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고용시장동향과 비정규직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기초통계만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함이 취약계층에 몰려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지속적으로 인적특성에 근거한 취약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딱 들어맞지 않아 생겨나는 기계적 오류와 같은 결과들이 아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수를 늘린다거나 비정규직의 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수치적 목표로 점철된 일자리 정책들이 효과를 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5월에 들어선 새 정부가 취임 후 첫 행보를 비정규직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일자리위원회를 바로 만든 것이 이제 거의 반년이 되었다. 이제까지 여러 정책들을 답습하기 보다는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비데이터적 문제들을 잡아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는 미약하고, 해결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8개의 표와 9개의 그래프로 나타낸 지표들에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는 동시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데이터 조사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한다. ▶



2017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7년 09월 29일 현재

분야	발간일	제목	작성자
경제	01/03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정승일
노동	01/09	2017 전망보고서 (1)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송민정
경제	01/12	일본은행이 선택한 화폐적 해법, 2017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 수 있을까?	송중운
복지	01/16	2017 전망보고서 (2) : '불통'에 멈춰버린 사회, 안전망을 세워야 한다	최정은
국내외 정세	01/23	2017 전망보고서 (3) : 국내외 정세, 대전환을 탐색하는 2017	박세길
세계경제	02/03	2017 전망보고서 (4) : 2017년 세계경제, "공포의 해"가 될 것인가?	송중운
마을	02/06	2017 전망보고서 (5) : 다가오는 건거의 계절, 마을살이의 운명은?	강세진
부동산	02/10	2017 전망보고서 (6) :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서는 주택시장	권순형
보건의료	02/13	2017 전망보고서 (7) :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병수
종합	02/22	2017 전망보고서 (8) : 2017년 7대 분야를 전망하다	새사연
부동산	03/0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권순형
부동산	03/10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권순형
부동산	03/1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권순형
부동산	03/23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권순형
주거	04/1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3년을 버티며 남긴 고민들	황서연
선거	04/18	The Plan: 민주주의의 깨트리기	강세진
사회복지	04/27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이은경
선거	04/29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강세진
보건의료	05/02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이은경
주택	05/10	비영리 공동체주택의 의미 및 활성화 방안	강세진
마을	05/25	관계와 숫자로 마을공동체 드러내기	강세진
주거	05/31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탐험기 ①	황서연
주거	06/22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탐험기 ②	황서연
마을	07/13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강세진
부동산	07/17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가?	권순형
기획	08/29	'사람중심경제'란 무엇인가?	박세길
마을	09/11	마을에서 연구하기: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	강세진
노동	09/12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천주희
노동	09/29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송민정